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모두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방문해주신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93조에 따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의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의의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벤처·혁신생태계 도약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합동간담회(3.26)를 가지고

과감한 직접투자과  
Death Valley를 메우는 자금 지원 등  
국민성장펀드의 혁신·벤처 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간  
훌륭한 협업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도  
대통령 자문기구와 부처의  
바람직한 정책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실한 반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 9.2%,  
코스피 8천시대, 역대 최고 수준의 경상수지\*,  
차원이 달라진 국가 브랜드까지,

\* 월별 경상수지: 3월 역대 1위(+379.3만불), 4월 역대 2위(+231.9만불)

이제 우리나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까지 경제의 큰 견인차가 되고 있으나,  
슈퍼사이클의 끝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른바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은 취업·주거·결혼·출산의 4중고를 겪고 있고  
가계부채는 리스크 요인으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지속적 성장,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전환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금융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  
벤처 혁신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류근관 분과장님이 이끌고 계신 성장경제분과 산하에  
김동환 위원님을 팀장으로 김우찬 위원님, 오현석 위원님,  
원승연 위원님, 한재준 위원님 5분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금융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회의는 자문위원님들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 분야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금융위원장님과 소통하는 정책 숙의의 과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고민을 나누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현장에 기초한 자문의견을 마련하여  
더 좋은 금융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관계 부처와  
항상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